

자수박물관에 다녀와서 느낀점을 써 보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동양자수박물관

체험학습지



www.orientalembroidery.org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자수란?

- ◆ 자수는 천, 바늘, 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를 다양한 기법으로 아름다운 효과를 나타내는 섬유예술의 한 분야이다.
- ◆ 자수는 형태의 구성요소인 점, 선, 면을 기본으로 하여 표현하며 색상, 명도, 채도 변화는 물론 실과 바탕천의 재질에 따른 광택과 질감의 변화까지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 옛 사람들은 손으로 한뼘 한뼘 떠서 수를 놓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인내심을 길렀으며, 상징적인 무늬의 수를 놓고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수복강녕을 영원하기도 하였다.

궁수와 민수의 차이점



궁수는 궁중에서 제작된 자수를 말한다. 궁수는 수방이나 관구조직에 의해 훌륭한 기술과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바탕에서 출발,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어 있음. 밑그림을 그려주는 화공이 있어 여염집에서는 보기조차 어려운 금사와 은사를 마음껏 사용했으며,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까지 갖추어져 빛깔이 청초하고 고운실로 만들어 냈다.



민수는 민가에서 놓은 수를 말한다. 그 솜씨가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내용이 풍부하고 유형이 다양했다. 혼인을 앞둔 양반규수들은 7~8살이 되면, 침모를 두어 바느질과 수를 배워 시집갈 때 시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드릴 예단까지 수를 놓았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남편과 자녀에 대한 간절한 영원이 담긴 각종 문양으로 주머니, 노리개, 수저집을 만들었다.

- ① 자수를 놓을 때 필요한 도구를 써 보세요.
()
- ② 품계(계급)에 따른 문양을 옷감에 수놓아 관복을 화려하게 하고, 상·하 신분을 표시한 계급장은?
① 후수 ② 흉배 ③ 보
- ③ 시부모·남편·자식등 가족의 옷치수와 버선본을 넣고 보관했던 것은?
① 바구니 ② 반질고리 ③ 실첩 ④ 버선본집
- ④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싸 가지고 갔던 보자기는?
① 밥상보 ② 패물보 ③ 기러기보 ④ 수보
- ⑤ 사군자에 들어가는 문양의 이름을 쓰시오.
()
- ⑥ 자수박물관에서 가장 인상깊게 본 자수는 무엇이고, 그 이름과 이유를 써 보세요.

- 이름 ()

- 이유 ()

)